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203)(10/21/2022)

제 3 권 내적 위로

55 장 본성의 부패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1-2 절

창 8:21 -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벤전 1:2 -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엡 2:13 -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갈 4:19 -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1. <제자> 주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창조하신 주 나의 하나님이며,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셨사오니(창 1:26), 내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늘 나를 죄와 멸망으로 이끌어 가기만 하는 나의 악한 본성과 싸워 이기게 하소서. 나의 육신 속에서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겨서(롬 7:23), 많은 일들에서 나를 사로잡아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게 만드는데, 나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은혜가 나의 마음에 뜨겁게 부어져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내가 육신의 정욕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2. “어려서부터” 나를 늘 악으로 이끌어 왔던 이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창 8:21),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도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로 인해 부패해졌고, 그러한 죄로 얼룩진 본성이 모든 인간에게 대물림된 까닭에, 주께서 선하고 바르게 지으신 “본성”은 이제 죄로 인하여 썩어 문드러진 병들고 악한 본성이 되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들을 늘 악으로 이끌고 비열한 일들을 행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 아직 남아 있는 작은 힘은 잿더미에 감춰져 있는 희미한 불씨와 같은데, 이것이 바로 짙은 어둠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자연적인 이성입니다. 자연적인 이성은 선악을 판단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낼 수는 있지만, 자신이 옳다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행할 힘도 없고, 진리의 완전한 빛을 소유할 수도 없으며, 진리로 인한 건강한 성정을 지닐 수도 없습니다.

말씀과 해설: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은혜와 반대되는 본성의 사람,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뒤틀려진 본성을 가진 옛 사람이었음을 동시에 말해준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 6:5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창 6:5 -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울러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창 8:21)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개혁신교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619) 69-71 번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 69: 거룩한 세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단번의 희생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임을 어떻게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합니까? 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외적 의식을 제정하셨고(세례) 그것으로 다음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곧 물로써 몸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의 성령께서는 내 영혼의 불결함 즉 나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십니다.

문 70: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겨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긴다 함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긴다 함은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멀어지게 하셔서 점점 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점차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심을 의미합니다.

문 71: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는 것 같이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영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답: 세례를 제정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6)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어버림’이라고 부른 데에서도 거듭 나타납니다(딤후 3:5; 행 22:16).

벧전 1:2 -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엡 2:13** -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딤후 3:5** -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은혜의 사람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 새롭게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은혜의 사람은 우선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다. **롬 12:2**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진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행한다. **마 12:50** -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마 7:21**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은혜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낸다. **갈 4:19** -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은혜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갈 5:22-23**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은혜의 사람은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은혜의 사람은 내 안에 아직 남아 있는 죄악된 육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어 놓으며 성령으로 씻음 받기를 간구한다. 은혜의 사람은

새로워진 마음, 생각, 말과 행동을 보인다. 은혜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린다. 나는 지금 은혜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참된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Presbytery of Southern New England)와 노회 산하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서 진정한 영적 갱신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권영봉, 이창배, 전만규(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루 속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며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